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2014년 12월30일(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주관: 한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일정

구 분	비 고
토론	⊗발제 -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과장) - 구자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 최순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토론 - 최영미 (구로구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추진팀장) - 김하생 (메이플스톤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질의 응답 및 토론	전체토론

축사와 인사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축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주민이 편한 행정, 마을 지향 행정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시작된 마을 공동체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 장수 마을, 성대골 마을 등 현재 서울의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시에서만 7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2,700여개의 소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가 번성하게 된 이유에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람간의 관계와 소통,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해결하자는 구성원들의 갈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받는 등 공공영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편한 행정과 마을 지향 행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양적 성장 위주인 도시 발전 대책에 새로운 관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체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진선미 의원님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과장, 구자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최순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인사말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올해 많은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오늘 토론회가 갑오년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마을만들기 업무는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라는 주제로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마을만들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육아, 교육, 문화, 주거환경, 공동일터 등 공통된 관심사로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급 지자체들도 이러한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토론회의 주제처럼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많은 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과 지원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법·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과 추운날씨에도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올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발제

마을지향행정체계 구축과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전략과 실천원칙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과장)

2014 민관합동 마을정책컨퍼런스

마을지향행정의 바람직한 방향

2014.12.30

서진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과장

마을지향행정?

"마을을 중심에 둔 행정"

마을지향행정....

1. 마을,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점 갖기
 -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주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2. 갑과 을의 태도 버리기
 - 협력적 민관거버넌스
3. 주민이 편한 행정 제도 만들기

3

서울시의 경험

행정지원체계 구축



법제도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



민관협치기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광역집행기관

서울시
마을담당관실
설치



자치구집행기관

자치구
마을과(팀)
생성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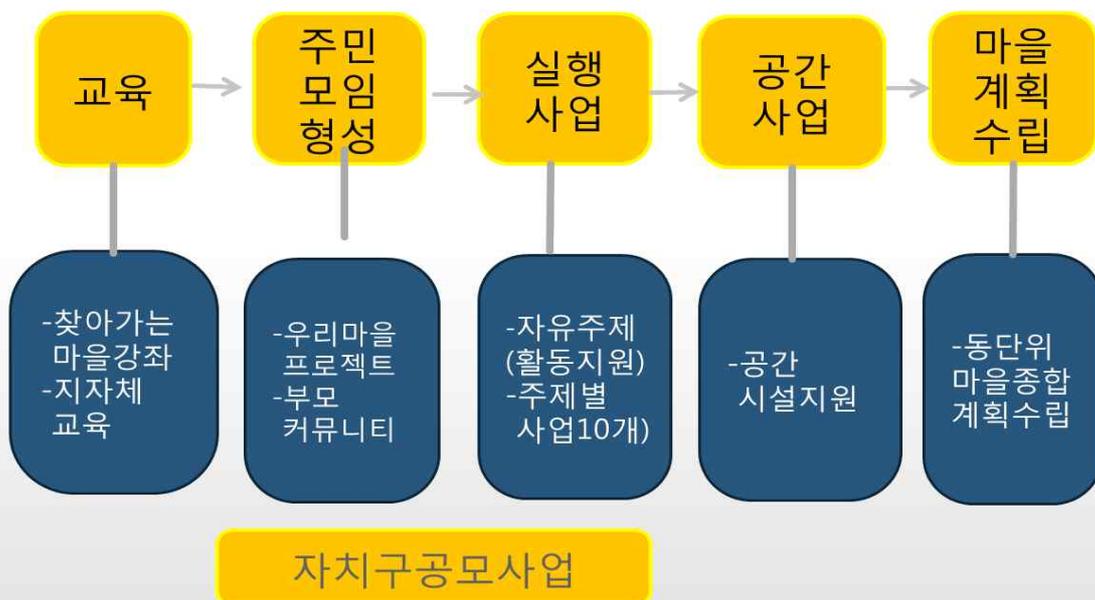
4

1.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 넘기기
- 공모사업 신청 자격의 혁신
 - 주민3인이면 공모사업 신청 가능 → **주민의 등장**
- 마을공동체사업 선정자 중 주민 모임의 비중이 증가

구분	합계		주민		단체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2012	1,187	100%	161	14%	1,026	87%
2013	973	100%	582	60%	391	40%
2014.9	649	100%	525	81%	123	19%

공모사업 체계



2. 협력적 민관거버넌스

■ 민관 관계의 변화

위계적 거버넌스 → 계약적 거버넌스 → **협력적 거버넌스**

용역수행자



지원한 돈을 잘 썼는지 **감시**하고
과업을 잘 수행했는지 **점검**한다

감시와 추궁 = 평가의 대상

시정참여자



주체적인 **시정참여**고
구체적인 **시정체감**이다

발견과 청취 = 평가의 주체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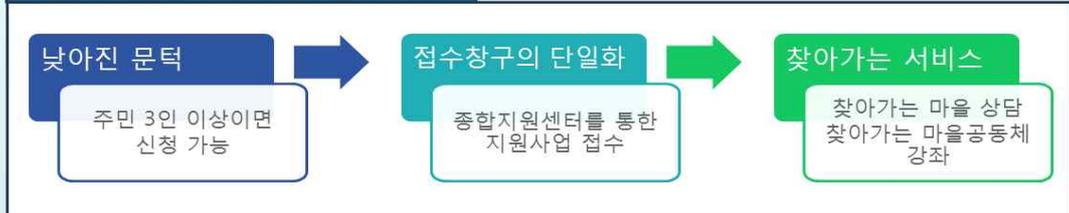
3. 주민 편익 행정제도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사업

- 목표1**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욕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목표2** 주민들이 손쉽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목표3**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활동사례 공유, 인적교류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살이를 돕는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특징



사람을 향한 지원

상담원
50+32명



?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나

- ! 1:1 상담, 최대 3회까지
- ! 전화/현장방문 상담
- ! 개념설명부터 계획서작성까지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25명



? 마을기업
어떻게 하나

- ! 스토리 등록자 상담
- ! 마을기업 지원절차 안내 및 모니터링

컨설턴트
20명



? 마을종합계획
어떻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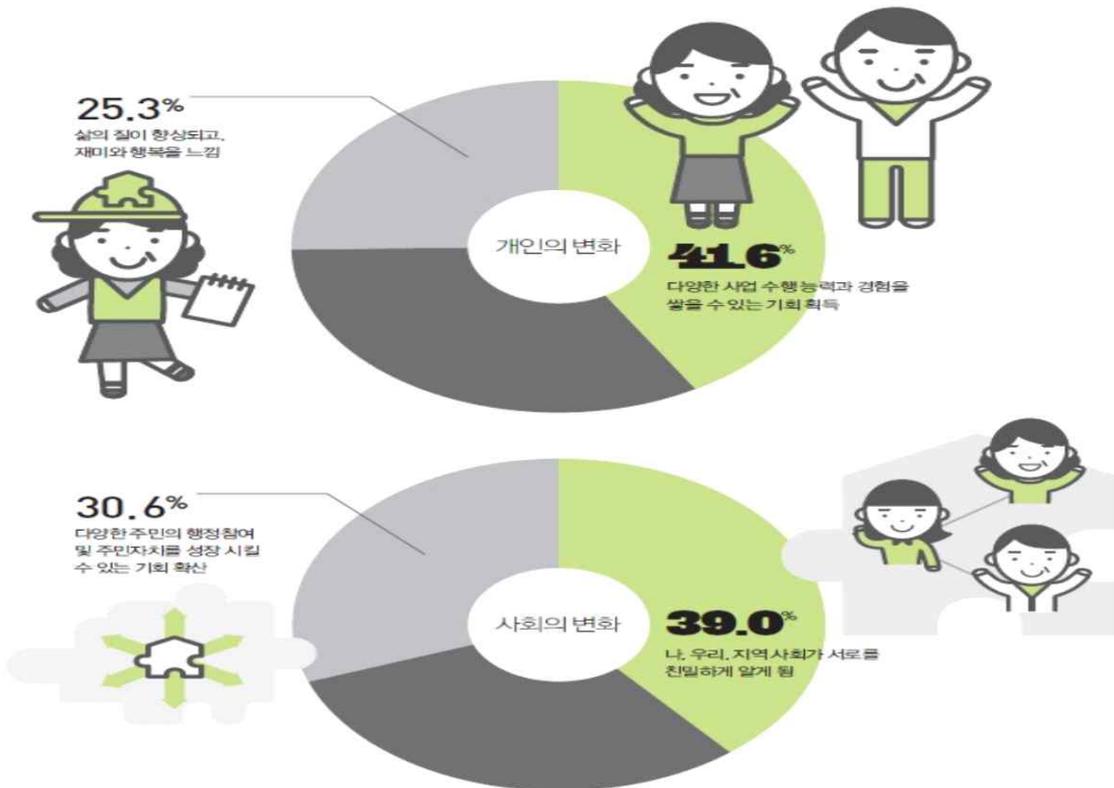
- ! 서울시책, 거버넌스
- ! 마을사업 종합 컨설팅
- ! 자원발굴연계, 주체 형성 등

멘토
71명



? 우리마을기업
어떤점
보강할까

- ! 마을기업 팀워크습시 역할
- ! 마을멘토/경영멘토
- ! 권역별 활동



점진적 행정혁신의 과정

[누구나 프로젝트]

- 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마을공동체팀, 자치구 생태계 사업단, 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 마을사업관련 다양한 단위의 공개적 참여를 통한 이해증진 도모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의 발전에 따른 제도보완
-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사회상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보완(세무, 노동기준 등)
- 용어정리 : 예) 보조사업자→마을사업지기

13

[동마을복지센터(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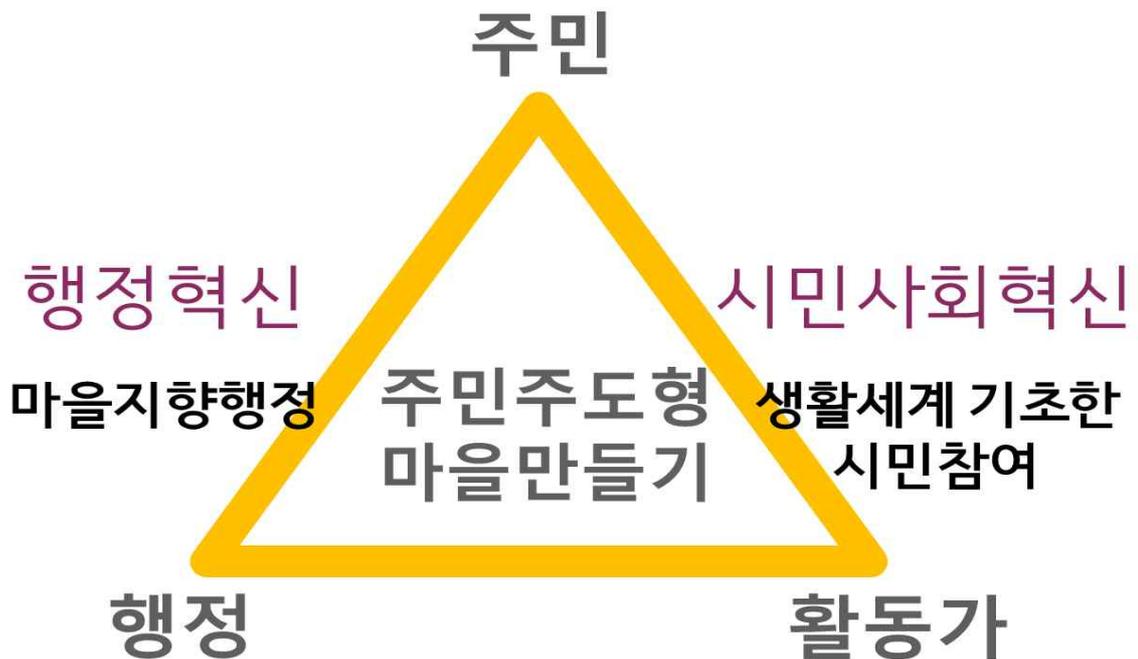
- 동주민센터를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
- 동주민센터를 주민의 공간
- 연 500명 마을복지인력 채용, 동마다 1명의 방문간호사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촘촘한 복지그물망
- 2015년 80여개동에서 실시
- 5개 혁신동(가칭), 20여개 예비 혁신동에서 **마을계획** 실시
- 혁신동에선 **동장공모제** 실시
- 혁신동, 예비동에서 마을공동체 팀 신설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 추진지원단, 구 지원단 구성
- **협력적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과제**

14

문제의식과 해결해야할 과제들

- 각종 위원회는 거버넌스 기구인가?
- 민간은 거버넌스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나?
 - 민민거버넌스는 잘 되고 있는가?
 - 까칠한 마을활동가들 !
 - 행정 또는 민간에 대한 경계심!?
-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개입과 규제!

15



발제

주민공모제 방식의 마을지원사업의 특성과 한계,
개선방안

구자인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



목차

1. 기초자치단체 마을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2. 마을지원사업(주민공모사업)의 개선방안
3. 마을 네트워크 형성과 통합적 사업추진 방안

기초자치단체 마을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 경험

1



기초자치단체 마을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마을만들기의 자치단체 지원 시스템 구축
마을만들기의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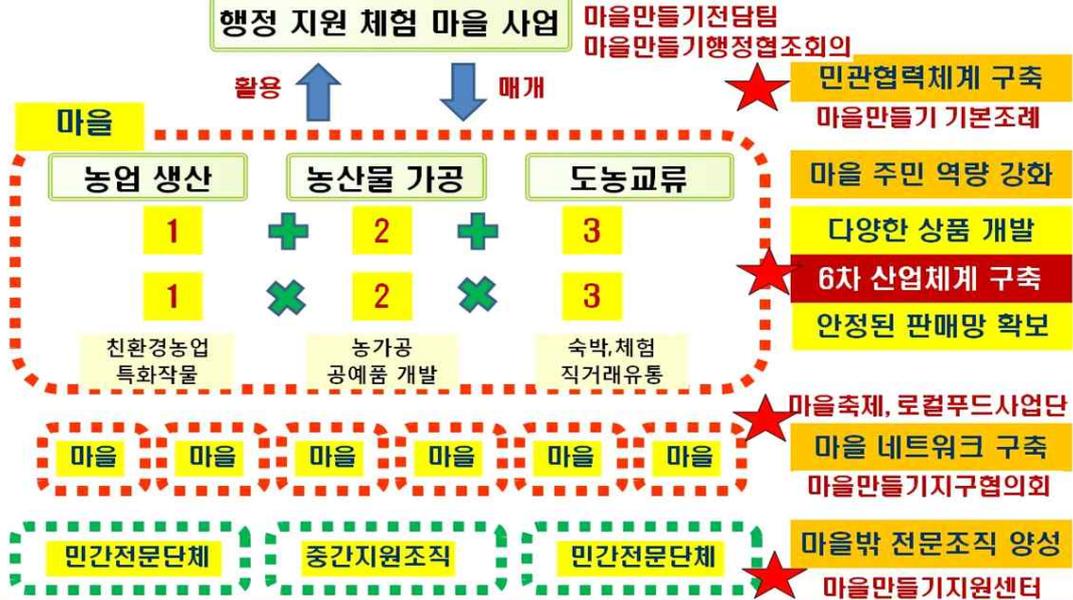
“문제는 자치단체 시스템이다”

- ◆ 마을 공동체를 파괴해왔던 20세기 1백년간의 역사적 무게감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자.
- ◆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자” 는 인식론과 실천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 마을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를 인정하자.

1-1. 마을만들기 자치단체 전체 시스템 : 마을+단체+행정

마을 공동체가 재생, 유지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서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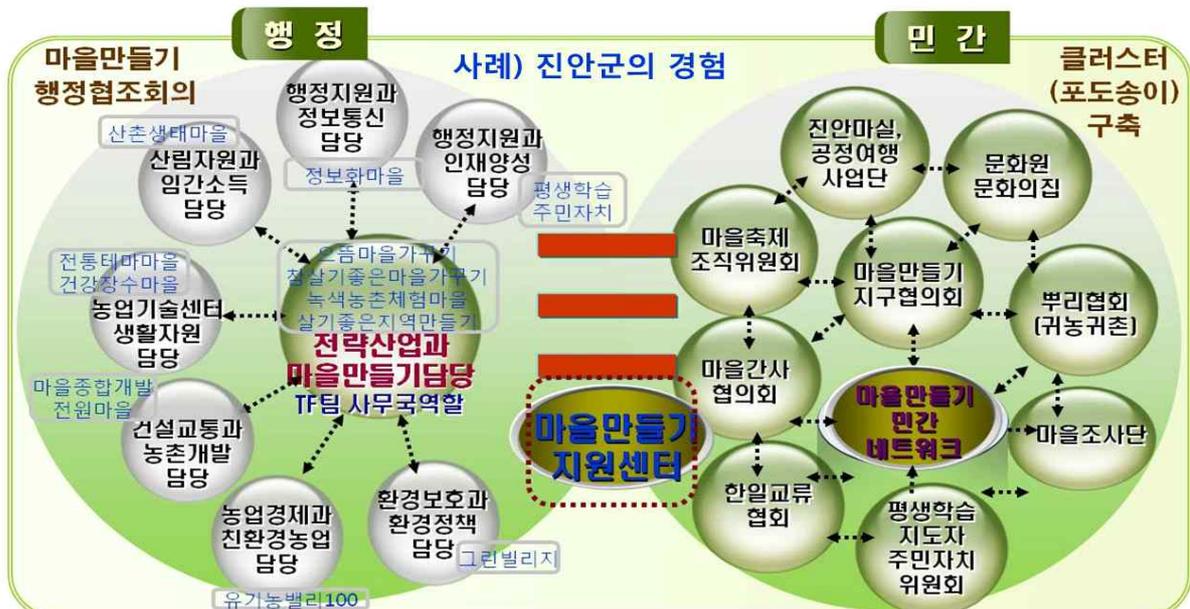
사례) 진안군의 경험



① 마을 공동체 활동 시스템, ② 마을과 마을의 협력 네트워크, ③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조직과 행정의 지원체계, 그리고 ④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1-2. 마을만들기 행정 시스템과 민관협력 : 대등하고 긴장된 협력관계

행정이 지원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민간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① 행정 시스템 : 전담팀+행정내 업무 협력체계, 전문가 양성+순환보직제 자제
 ② 민간 시스템 : 다양한 영역의 전문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③ 중간지원조직 : 대등하고 긴장된 협력관계의 매개자

**1-3. 마을만들기 '기본' 조례 제정 :
민관합의로 철학과 시스템 포괄**

정치적 요인으로 쉽게 바뀔 수 없는
자치단체 시스템을 포괄해야 한다.

사례) 진안군의 경험



- ①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 리더 및 활동가 양성, 마을 역량의 강화
- ② 마을 네트워크의 구축과 민관의 협의 테이블 형성(특히 의원)
- ③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의 절차를 거쳐 기본조례(헌장) 제정

2



마을지원사업(주민공모사업)의 개선방향

**행정이 마을주민의 자발적 활동에
개입하는 범위와 방식**

“행정사업의 관점과 방법론이 문제다”

◆ 행정사업(예산)을 통해 마을주민의 공동체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 행정은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기존 사업의 평가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규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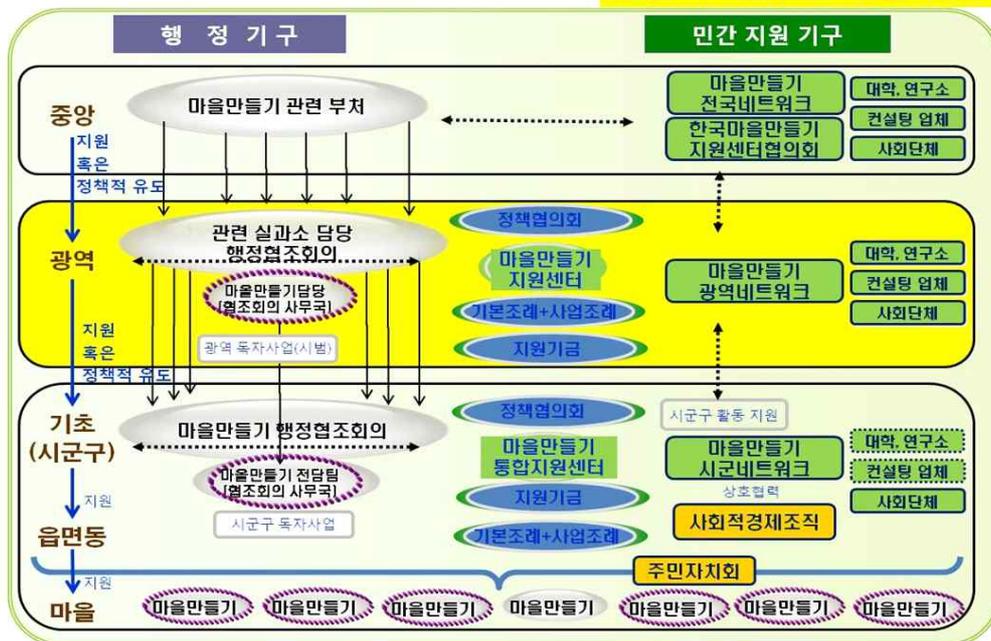
◆ 행정이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민간 활동에 개입하는 방법론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 사업지침은 시범사업을 거쳐 민과 관의 토론을 통해 확정하자.

9

2-1. 마을만들기의 행정 사업 시스템 : 중앙과 광역, 기초의 기본 역할

마을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지방(주민)자치 관점을 견지하며 시스템 구축사업을 우선해야 한다.



① 시군구(정책) 혹은 읍면동(생활)에서 완결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지원센터, 조례, 그리고 기금 사업이 기본이다. 10

2-2. 중앙 및 자치단체의 행정 사업 '내용' : 행정의 관점과 역할, 사업

행정사업의 관점과 방법론, 내용을 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

행정
사업

관점

- 1) 마을에 대한 직접적 예산사업 지원 자제
→ 마을예산사업에 대한 '집착' 탈피
- 2) 신규 행정사업의 발굴 관점
→ 신규 사업 발굴 자제, 공무원 업무의 질적 향상 중시
→ 기존 사업 리모델링 & 사업간 연계 적극 모색
- 3) 사업 집행 방식의 개선
→ 마을과 주민의 객관적 역량 파악하고 존중. 추상적 사업 자제
마을(주민) 스스로 제안하는 상향식 사업 제시 중시
→ 집합식/집체형 교육은 최소한으로 국한. 실습과 토론 중심

중앙,
광역시

- 1) 법, 제도적 정비 + 사업의 기획과 조정, 자극 제공
→ '시군구 단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유도"(공모사업 활용)
→ 시군구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해 적절한 경쟁 유도
(중대규모 공모사업)

역할,
사업

- 2) 시군 밀착 전문가 그룹, 민간 컨설팅 업체 육성 지원
→ 관련 그룹/업체 사이의 적절한 경쟁 유도
- 3) 주민교육(학습)용 교재/교구 개발
→ 워크숍 키트, 달력, 동화/만화/동영상, 학습자료 등

11

2-3. 기초 지자체 마을 단위 행정 사업의 정비 : '칸막이 행정'의 극복

행정 사업간의 연계성을 정비하고 유사 사업은 단계화로 접근해야 한다.

사례) 진안군의 경험

성공모델 창출
(선택과 집중)

지자체의 자율 판단

행정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예측가능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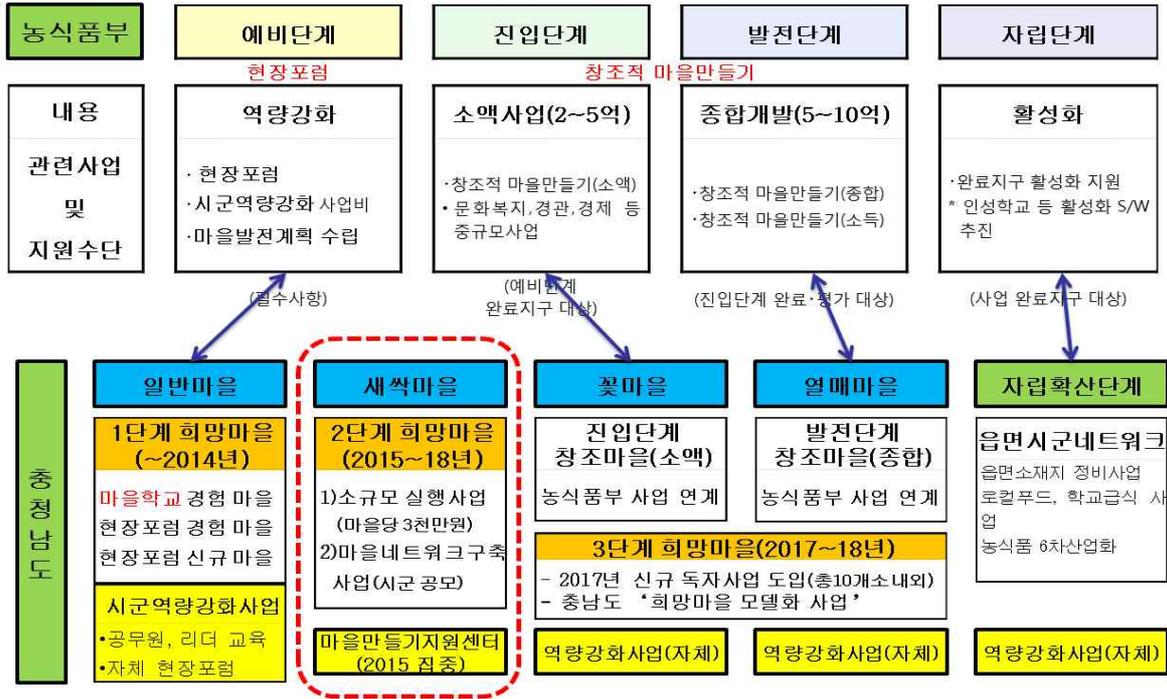


진안군 303개 마을(행정리)

- ① 행정 전담부서 : 핵심사업(교육, 시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무국 역할 담당
- ② 사업체계 : 작은 사업을 통해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액션러닝)
- ③ 관련 사업 분야 : 마을공동체 & 경제/취미공동체의 양대 축

12

<참고> 충남 희망마을 사업과 농식품부의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 개념도



2-4. 공모사업 선정방법론 개선 : 학습과 토론을 통한 주민 주도성의 강화

사전 교육(학습)이 선행되지 않는 행정 공모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 ① 기존 방식(a) : 공고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선정
- ② 개선된 방식(b) : 사업설명회 → (a) → 결과보고회 → 우수사례 추가지원
- ③ 학습 강화 방식(c) : 모집 → 공동학습과정 → 사업계획 발표 → 평가 및 선정



마을네트워크 형성과 통합적 사업추진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경제와 교육, 문화, 복지의 통합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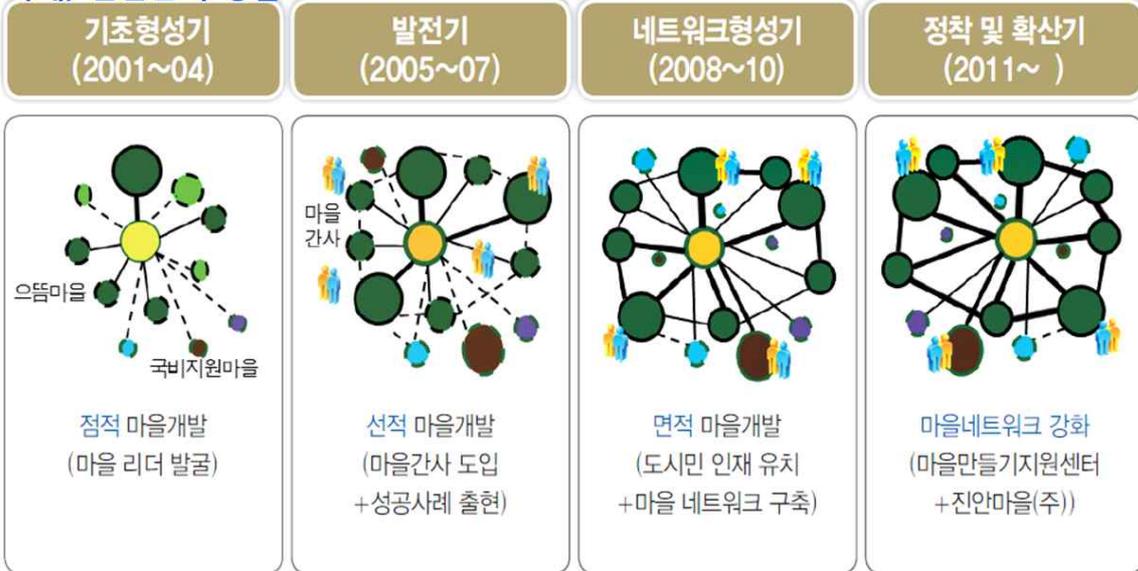
“마을은 외부로 열린 공동체다”

- ◆ 마을과 마을은 협력을 통해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 행정과 독립된 민간의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소공동체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 마을은 경제와 교육, 문화, 복지 등이 결합된 하나의 온전한 소유주다.
 - 행정의 칸막이 사업으로 이를 분단시켜서는 안되고,
주민 주도성 속에서 통합하는 관점을 가져야 지속가능하다.

3-1. 마을 네트워크의 구축 경로 :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

마을 네트워크는 다양한 공동활동 경험을 축적하면서 형성된다.

사례) 진안군의 경험



- ① 점에서 선, 면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마을 네트워크 구축 (최소 10년의 시간)
- ②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약직 공무원, 위원장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방향성
- ③ 내발적 발전론의 관점 : 주민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의 길

3-2. 마을과 주민 리더의 네트워크 : 일상 생활 리더의 대표성 존중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마을과 리더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례) 진안군의 경험



- 2006. 9 으뜸마을가꾸기추진위원장협의회 → 특정 행정 사업 대상 마을 위원장의 협의회
- 2008.12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 모든 행정 사업 대상 마을로 확대하여 조직 (24명)
- 2010.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 위원장의 친목 모임 성격에서 마을 대표자로 참석 (29명)
- 매월 회비 납부하는 민간 자조 조직 성격 강화. 하지만 회원수 확대에 한계.
- 이해관계(온도차) 차이로 정치적, 경제적 공동행동의 한계.

3-3. 마을 발전의 사업간 협력체계 : 공동 사업의 발굴과 공동행동

다양한 공동사업을 경험하면서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된다.

사례) 진안군의 경험(2007년 작성)

학습과 토론에 기초한 주체 역량 강화 평생 학습	1 주민학습기회 확대 • 마을만들기 대학운영 • 마을사랑방 강좌 운영 • 정기적인 해외연수 실시	2 지역전문가 육성 • 지역해설사 육성 교육과 운영 • 마을간사 제도 정착 • 마을조사단 확대 운영	3 학습조직 활성화 • 마을 협동조합 설립 • 학습동아리 육성사업 추진 • 포럼, 워크숍 정기개최
지역주민 주도의 자치시스템 구축 주민 자치	4 마을자치 시스템 강화 • 주민 자치조직 강화 • 마을 공동활동 활성화 • 마을 자치규약 제정	5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 위원장협의회 공동사업 활성화 • 마을만들기 행정 TF팀 활성화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6 민간 전문기구 설립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2010) • 마을만들기 진안학회 설립 • 읍면단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주민 소득 향상으로 경제 기반 정비 경제 자립	7 마을 공동사업 지원 •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발굴 • 소규모 사업으로 성과 창출 • 국도비 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8 농업 소득 증대 강화 •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확대 • 지산지소 농산물직거래시스템 구축 • 2차 가공산업 육성	9 도농교류 농외소득 확대 • 도농교류, 귀농귀촌 활동 지원 • 마을축제 및 전국대회 개최 • 사시사철 마을 소속제 지원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 상부상조	10 귀농귀촌 정착 지원 • 귀농귀촌협회 설립 및 활동지원 • 소규모 전원마을사업 독자 추진 •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제정	11 생태환경과 전통문화 보전 • 마을단위 친환경 농업 전환 지원 • 자연공생형 생태 시스템 도입 • 전통마을문화 조사 및 DB구축	12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복원 • 소수지 배려의 마을 활동체계 구축 • 어린이교육 지원 활동 도입 • 상호부조 마을 복지 시스템 도입

주민자치, 평생학습, 경제자립, 상부상조 등 4가지 목표(전략)에 근거하여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출발 당시부터 민관협력을 전제로 출발. 대부분의 사업들이 실제로 착수.

→ 마을만들기 공동의 비전과 목표 수립.

→ 민간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확정하여 행정에 요구. 이를 통해 칸막이 극복¹⁹

3-4. 마을 네트워크의 전국적 연대 : 민간의 '칸막이' 의식의 극복

기초 자치단체 범위에서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의 역사 : 1992년 이후를 중심으로



①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를 구분해야 한다.

②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

③ 주민자치와 연대, 협력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공동 활동을 전개하자.

3-5.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보조사업 대행자 vs 주민의 방패막이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초 위에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중간, 지원, 조직의 가능성과 한계



- ① '중간' '지원' '조직'의 애매모호한 실체. 공적 권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②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정착되지 못한 지역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들...
- ③ "누가 더 공공적인가?"(명분) + "주민들에게 환영받는가?"(과정) → 전략적 선택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
 - 이성부 시인의 '봄' 중에서 -



발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마을단위의 통합적 추진방안

최순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2014 민관합동 마을정책컨퍼런스

마을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 실천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최순옥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문제의식 >

1. ‘마을’ 이전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뤄졌던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활동’과 정확히 구분될 수 있는가?
2. 동 단위 마을운동(공동체조성)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3. 통합실천을 위한 관과 민의 협력체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4. 과연 ‘행정’은 통합지원행정을 구축하고 있는가? 가능한가?
민간은 작던 크던 서로 협력적으로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들여다보기>

1. 지방자치 부활 이전까지 ‘지역사회’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민, 행정 에 협력하는 주민의 ‘참여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인식, 사회적 지위의 확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인식, 즉 애향심에 기초, 또는 정치적 영향력,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선의에 의한 활동
 - 일회적이고 비연속적이며 지역사회 문제점과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한계

2. 마을공동체 정책 시행 이전 '풀뿌리시민사회' 활동과 '마을공동체' 연계

- 시민활동의 조직화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주체들의 성장과 영향력 제고를 위한 노력, 시민성 제고에 기여하며 '관심 주제별 활동들의 활발한 생태계 구축 지향(문화,교육, 환경, 협동조합, 복지, 지방자치, 미디어, 사회적경제), 한편으로 지방정부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정책제안과 민관협력 활동 등을 전개함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측면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이 사회운영 능력을 높였고 지속적이며 자발적이거나 행정과 밀접한 관계망 유지에 관심없거나 배제된 세력들이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는 못함
- 마을공동체와 연관성은 지역에 기반한다는 점, 다양한 마을안에서 관계망들을 갖고 있다는 점, 직업적으로 풀뿌리 활동을 하는 리더와 활동가들이 있다는 점이 이후 마을안에서 통합적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음

3. 마을정책에 협력하고 주체가 될 주민

-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개인화, 경쟁우선, 삶의 방식과 사회운영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
- 지역사회 활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나 마땅한 기회가 없거나 기존 지역사회 운영세력의 행정과의 밀착으로 차여주체로 나설 여건이 안되었던 풀뿌리활동가
- 지역사회 주민자치. 자원봉사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자), 복지활동가, 참여예산주민들, 통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직능단체원들
- 행정과 민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들과 발굴·성장된 주민들
 - 마을만들기분야 (도시재생, 주거재생-커뮤니티플래너, 주민자치),
 - 평생학습분야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동아리 등)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동아리,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자원봉사캠프회원들)
 - 사회적경제분야 (먹거리, 의료, 주거 등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공동체 등)
 - 지역복지관 (지역담당복지사, 복지자원활동가, 복지자원 등)
 - 문화분야 (예술회관, 문화재단, 마을예술창작소, 문화활동가 등)
 - 교육, 아동, 청소년분야 (공동육아조합, 품앗이육아모임, 어린이집·유치원 부모모임, 학교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환경생태, 도시농업분야(환경생태활동 동아리, 자연, 생태·숲해설사, 도시텃밭활동가, 도시텃밭농부들)

○ 도서관, 미디어분야(공공도서관 자원활동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도서관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 신문, 방송 참여기자단, 시민기자단, 영상제작단, 라디오 관련 활동가들)

<통합적 실천을 위한 제안>

1. 행정부서의 기능과 역할, 중간지원조직구성과 전담공무원 배치

- 마을공동체정책은 지방자치. 주민분권강화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 정책으로서 위상 가짐. 기존 주민자치 활동의 행정 의존성과 무기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발성과 욕구 중심으로 조직된 주민의 등장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주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마을지원과/마을지원팀 등 전담부서 구성과 운영
 -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마을과 주민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 연속근무 필요 (최소 3년 이상)
- 마을사업과 마을공동체형성에 연관된 각 부서별 사업 통합협력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주거재생, 사회적경제 등 '주민주도, 주민협력' 전제된 부서별 사업이 분리되지 않고 한 부서에 사업담당자 개념으로 협력진행되도록 운영 필요
- 동 단위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조성)활동 수행체계 필요
 - 마을지원사업이 초기는 씨앗기 주민모임 발굴 지원에서 연차수가 더해질수록 마을 활동 본격화가 이뤄지면 자연 동 단위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를 동마을만들기로 견인하고 지원 협력할 계획이나 실제 운영이 되어 마을이 변할 수 있음
 - 최근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로 동단위 마을긴급사업들에 대한 주민의 제안이 채택되어 진행되는 경우 생기고 있어 더욱 '동단위 마을사업자와의 연결과 협력'은 필수. 결과적으로 '동단위 마을생태계구축'이 목표가 된
 - 2015년도 서울시 마을과가 수행할 '마을계획사업'이 주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 있음
- 중간지원조직 필요-민간자원 참여로 거버넌스의 산물이 되도록.
 - 행정부서는 '정책과 예산'으로 대표되는 중심사업 발굴, 수행, 지원체 성격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 마을생태계구축'을 위한 '활동가 교육과 양성, 공동체구성을 기반마련(지원사업관리, 홍보,기록,모니터링사업 등), 대표마을공동체조성 발굴 육성'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여건을 직접,간접 지원형식으로 수행(행정수장의 변화나 정책기조의 개폐와 상관없는 항상성 갖는 것이 필요)

-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간에 부여한 역할 수행자의 통합 관리운영에 필요예산 등 지원
 - (예) 은평마을지원센터의 경우
 - : 서울시 마을상담가, 마을기업인큐베이터, 마을멘토, 부모컨설턴트, 커뮤니티플래너(공동주택활성화 지원가), 마을강사 등 ‘마을지원단’으로 구성
 - : 주 1회 지원단회의, 회의비와 활동비 일부 제공, 멤버십 전제, 지원센터 부족 인력 지원 역할도 동시 수행
 - : 기초상담, 마을사업기획코디네이션, 컨설팅, 정보와 자원 연결, 사업자와 구청, 중간지원조직, 지역 마을활동체들과 연결자 역할
- 통합적 지원조직에 대한 구상 필요
 - 중간지원조직 간 사업영역 중복 우려/ 현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조직운영 시도중인 지자체 있음.
 - 자원봉사. 마을지원기관 등을 엮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좀더 상위의 지원조직이나 제도 필요 (주민발굴, 주민성장 지원, 지역사회 역할 수행자로 순환되도록.)

2. 지역사회 자발적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체계 만들기

- 지역활동체들은 ‘지역운동, 자원봉사, 마을활동’을 둘러싼 기초자치구,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분야별 활동의 성장은 자치구 행정과의 정책공조, 정책수행 등을 요구하게 되거나 당연한 협력으로 이어짐.
 - 분야별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주민의 관심과 성원, 구체적 참여와 실천활동’이 요구되며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게될 수 있음
- 시민사회 성장은 모든 지자체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이 성장한다는 관점 필요하며 직접적인 정책과 무관하더라도 ‘풀뿌리주민활동(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 현재 수원, 서울 등 마을만들기 정책, 마을공동체 정책을 수행하는 기초구나 광역시의 경우 초기 마을생태계 구축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곳은 풀뿌리시민사회임
- 단체 활동에서 성장한 지역활동가들이 전업적 마을활동가들로 활동이 확대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정책적 지원, 예산지원, 지원제도나 구조 마련 등

- 지역(마을) 활동조직과 구성원들의 동별 참여 필요 -공동체마을조성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 활동, 주민참여예산활동, 마을계획사업 등

○지역사회 마을활동체들이 분야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조성, 마을활동가 배출, 마을공간운영, 마을사업 참여’등의 일련의 마을화과정을 지원하고 마을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든든한 뒷심이 되어 한다.

- (은평지역 사례 / 26개기관단체 협력네트워크/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 풍물패터올림
- 한국여성의전화
- 은평두레생협
- 은광지역아동센터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 어린이도서연구회서울지부은평지회
- 소리나는어린이집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생태보전시민모임
- 살림의료사협
- 녹번종합사회복지관
- 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꿈나무도서관
- 마을n도서관
- 신나는애프터센터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아름다운가게
- 한살림 중서지부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은평씨앗학교
-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 구립갈현노인복지관
- 평화로운집
- 은평교육복지센터
- 은평주거복지센터
- 은평상상



-은평지역 분야별 네트워크 현황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은평작은도서관협의회, 장애인이살기좋은 은평만들기네트워크,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은평미디어모임, 은평상상허브(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NPO허브 역할), 은평지역복지네트워크, 그 외~~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 사례-은평의 시민사회>

시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풀뿌리 공동체운동을 통해 사람살맛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은평지역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

1.은평구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26개 단체연대

-풀뿌리.환경.문화.지역복지.장애인복지,여성,사회적기업.자치,책과도서관,대안교육,생협과 사회적기업,
봉사 각 영역에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사람들.사업.활동거점이 있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생태보전시민모임, 터울림,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마을N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은평시민
넷, 은평씨앗학교, 한국여성의전화,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늘봄장 애인자립지원센터, 함
지박사랑, 은평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두레생협,살림의료생협,아름다운가게,

-따로또같이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크고작은 풀뿌리들의 연대

은평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지지와 지원.

은평구 민관협력의 파트너들의 집합체

<문화로 숨쉬고 예술로 소통하는 동네>

-10년째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날축제, 지역자원들의 결집과 교류의 장

-은평마을 상상축제:지역의 60여개 단체.기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풀뿌리 축제(올해 6년차-은평구
청누리축제의 토대가 됨)

-은평문화포럼. 문화자원조사. 문화지기양성과정. 민관협력으로 은평누리축 제안착과 문화예술위원
회 구성운영, 은평문화예술회관을 구청 직영으로 ..

-마을예술창작소를 준비 중

<지역에서 교육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새로운 중간지원조직들의 출현>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은평씨앗학교

-부모교육.청소년 진로교육. 학교운영에 학부모참여. 도시형대안학교모델

최근 3년간 민관협력으로 친환경무상급식제도. 교육경비보조금운용(친환경학교만들기, 교육컨텐츠사업 등) 대안만들어 지자체의 개입으로 학교변화 주도

-은평신나는애프터센터(청소년,교육네트워크 허브 역할), 은평교육복지센터 (교육복지 허브)

<지역과 노동운동이 만나다-.>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은평지역 노동 시 민사회단체 공동사업단

---> 지역노동인권센터 준비중

-은평지역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증진.인권개선

:교육.캠페인,강좌,돌봄노동자 근골격계질환 검진사업 등

<건강권 운동과 건강마을을 위한 의료생협운동>

-누구나 건강한 은평만들기캠페인단:병원노동자희망터, 살림의료생협,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서울지부 등 22개 단체와 기관이 협력

-‘소득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은평구’를 만들기위한 활동.

-의료보험비대납운동. 관련 조례개정운동. 건강실태조사력으로 건강실천단. 건강강좌. 주치의사업 등 진행

-3년전 ‘살림의료생협 창립->살림의원 개원-> 다짐(생활운동공간)’ 개관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와 조합원 교육을 중심에 둔 협동운동 활발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협동조합이 꿈틀대는 은평>

- 은평두레생협(10년, 친환경 먹거리 생활재 생협), 살림의료생협(3년,보건,건강.의료문제 해결) ,공동육아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18년 부모참여 협동어린이집),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에너지 대안찾기, 태양발전에너지생산),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 은평협동조합협의회(두레,살림,신협,에너지)공동교육 등 진행 중, 협동과 돌봄의 관계망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하고 확산, 상생과 대안적사회경제모델만들기주도
- 새로운 청년그룹, 창업그룹 등 사회경제특화사업단과 연계하여 은평내 이입

<동네사람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도시농업>

- 도시농업의 알찬 모델이 시작되는 곳, 은평에서 로컬푸드운동을!
- 갈현근린공원내 갈현텃밭 위탁운영 준비중 :텃밭을 매개로 한 주민교육과 공동체 활동 목표, 친환경 도시농업, 방문교육현장으로 운영 계획
-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도시농업위원회.에코상상사업단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 장애인인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서부장래인복지관 등18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네트워크
- 장애인어울림마당 공동 주관
 -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운동 시작: 응암로 보행로 도로 조사 및 개선활동도

<마을마다 도서관을 마을공동체의 거점, 마을도서관운동>

- 공립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공존과 협력을 기본으로 '은평작은도서관네트워크 준비 중'
- 도서관자원활동가 양성교육과 도서관축제 진행
- 마을엔도서관,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초록길도서관, 녹번복지관 중심
- 구산동도서관마을 신축 과정에 사전 도서관마을만들기 주민조직화 사업 구청과 함께 추진 중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흐름-사회적경제허브센터 준비 중>

-씨즈와 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사회적경제 전반의 생태계구축사업)

-다문화가정들의 마을기업마을무지개

-주부들의 건강한 일터, 마을엔카페·마을엔공방·마을엔예술학교(동네자영업공방네트워크)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은평두꺼비하우징과 산새마을, 산골마을 등으로 확대

-풀푸레카페·생태교육사업하는 에코상상사업단

<그 밖의 여러 분야에서 주민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흐름>

- 지역주민들이 만든 마을미디어 '은평시민신문' 협동조합으로 다시 출발

- 지역아동센터들이 교류와 연대와 협력의 장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

- 은평구청의 변화 : 주민참여예산제-평생학습관-다양한 주민참여구조 운영으로 지역사회 주민활동 활성화 됨

토론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원방향: 행정의 시선으로

최영미

(구로구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추진팀장)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지원방향

구로구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추진반 최영미

2012년 4월에 처음 전담팀이 꾸려지고 얼마 안 있어 우리구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구 구청장님께서 누구를 주체로 할 거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그때 누구를 주체를 해야 하나를 고심하였기 때문에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질문은 제가 이 업무를 하는 동안

항상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물음이 되었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인가? 마을사업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 주체를 키우고 남기는 일은 무엇인가?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마을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와 서울시에서 시작한 마을공동체는 차이가 있으며,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는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마을공동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나름의 구분은 마을만들기는 사업이 주가 되는 거라면, 공동체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마을사업이 있었으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행정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도 없어지거나 흐지부지되어 마을만들기사업이 도리어 마을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예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몇 년전 우리구 마을만들기 사업중에 “우리동네 꽃밭”이란 사업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동네의 조그만 빈터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무단투기도 막고 동네의 환경을 가꾸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꽃밭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꽃밭을 매일 보고 가꿀 그 골목 주민들은 사업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던 거 든요. 2년이 지난 지금 그 꽃밭은 꽃밭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어 버렸 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위한 마을사업은 지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사업에 어느 단 체의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지속가능한 마 을사업으로 남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사 사업기간이 종료 되었더라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마을사람들이 있 고 사업을 통해서 향상된 마을사람들의 역량이 있다면 분명히 어떠한 기회에 다시 마을사업으로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마을사업은 더디고 느슨합니다.

아직은 온전한 마을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희망을 안겨주는 마을들이 구로에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걱정으로 모인 부모모임과 단순히 아파트 엄마들의 수다에서 시작한 모 임,토요일에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한 좋은아빠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의 빈공간 을 지역주민을 위해 내놓은 목사님도 계시고,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장상 인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들을 돕겠다고 나선 마을청년들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은 개인의 욕구지만 그러한 욕구들이 이웃과 함께하면 모임이 되고, 협력자를 만나면 마을사업이 됩니다.

마을공동체의 가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일하며, 함께 할 일거리가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제는 주민과 행정의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제 주민은 행정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이며 공동의 생산자입니다.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가 되어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갖고
주민 서로가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마을일을 함께 해 나가고,
행정은 기꺼이 마을에 필요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하며 주민의 뜻을 모일 수 있는 마
중물 역할을 하는 마을지향적인 새로운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마을공동체는 확실하게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문제를 풀어줄 해법이 될수 있을 것이며
도시에서도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년전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체를 누구로 할거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업무를 하면
서 찾았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모든 주민입니다.
우리 행정에서의 할 일은 그런 마을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자치역량을
키워서 마을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수 있도록 하는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마을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지원방향: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하생
(메이플스톤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2014 민관합동 마을정책컨퍼런스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 김하생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기. 있다? 없다!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것?

행정+민간전문가

중간지원조직에 **없는** 것?

주민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을 중심으로 (= 주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걸어가는 **함께살이**의 모든 과정입니다.

주민입장에서 1. 현기증 나는 마을만들기는 이제 그만!

멀미!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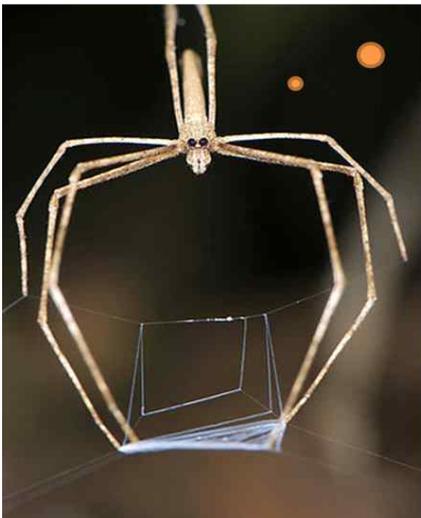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쏟아지는 교육과 사업들!
참여하세요! 역할과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주민참여!

우리도 나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뿐인 가치, 형식뿐인 사업에 우리도 헛갈린다구요!

3

주민입장에서 2. 기본에서 생각하고, 애뜻하게 받아 주세요

다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겐 이게 필요한 최선입니다!



표현은 어설퍼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서툴러서 그렇지 기다려주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라는 건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건 잘해요!
어려운 건 잘 못해도 하고 싶은 건 즐겁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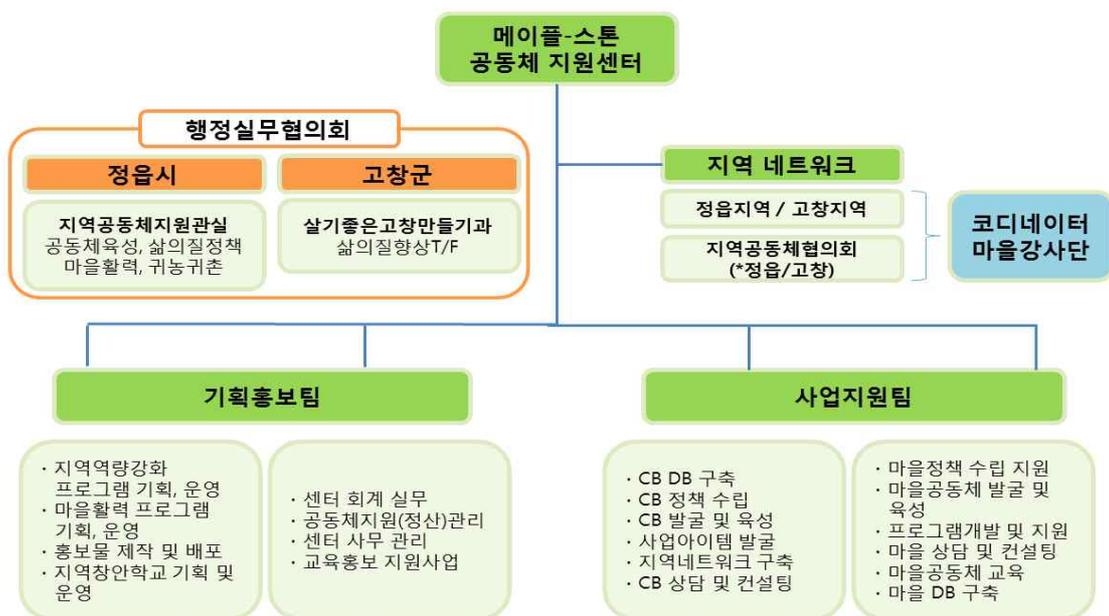
왜 주민참여를 부르짖고 있는지 잊진 않으셨죠?
우린 뿔속까지 공동체 삶을 기억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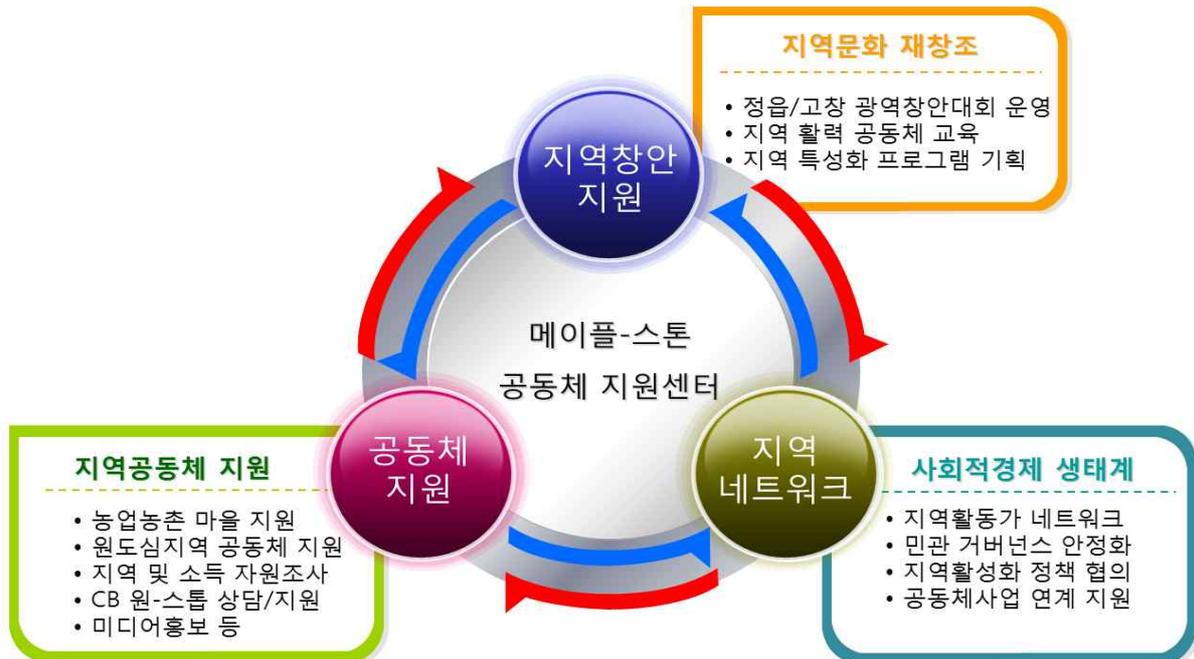
틀을 만들되 형식을 버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태어나다



모든 업무는 현장과 사업지원과정에 맞추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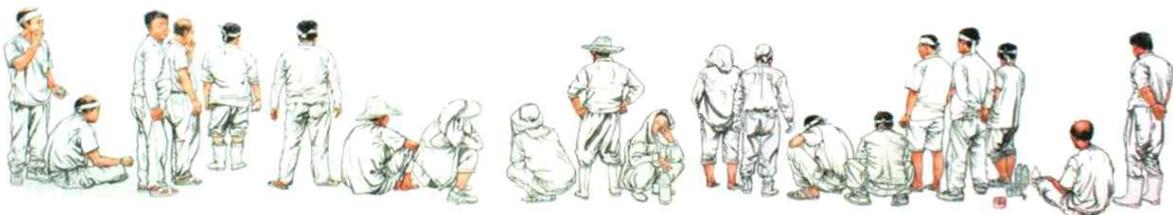
간소하지만 지역의 결핍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7

그런데, 함께 사는 마을살이 어떻게 하지?

잃어가는 삶의 터전을
채우기 위해 일단 모였는데...



지역에서 무얼하든 우리는 먼저 주민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 지역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아니까요.

8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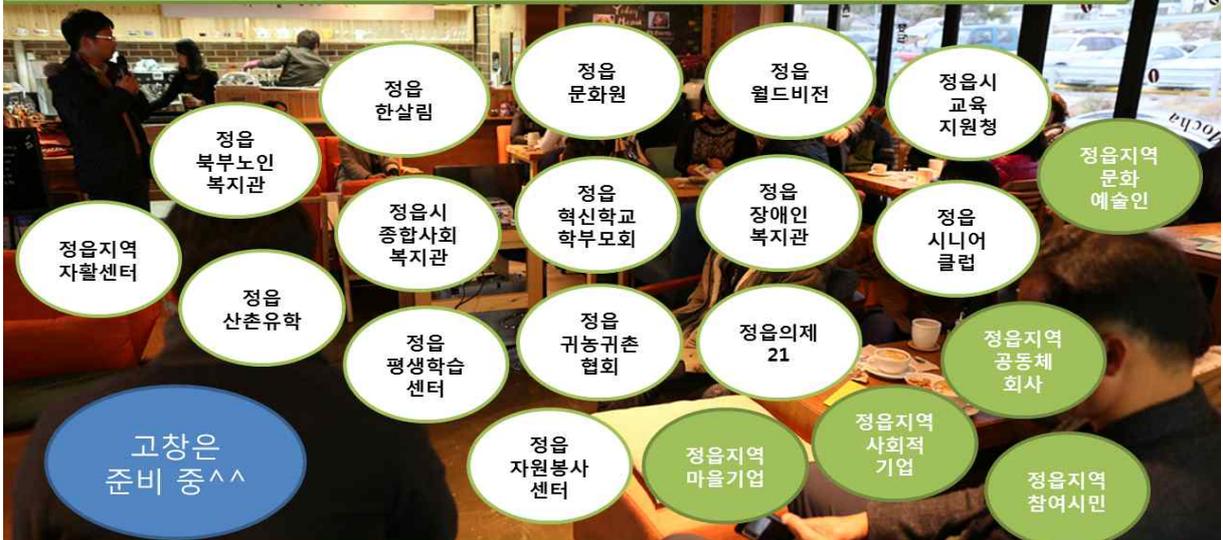
- 1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
- 2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
- 3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
- 4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
- 5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일

그런데, 이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만들어 낼 수 있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뭐? 부문별로 함께 도와줄 전문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9

우리는 먼저 흩어져있던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났어요

지역네트워크 구축? 처음부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진행중!** 자유롭게 마음을 보태며 27개 단체 56명으로 시작한 정읍넷이 시간이 흐르며 늘고 늘어 50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10

우리는 먼저 흠어져있던 지역의 활동가들을 만났어요

지역네트워크 구축! 정읍넷 '정읍을 새롭게 살리는 만남'



협동순환경제



교육



복지



문화예술 & 공공디자인

11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지원 틀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ing...

지역창안대회 운영! 아이디어를 스스로 제안하고 공동체가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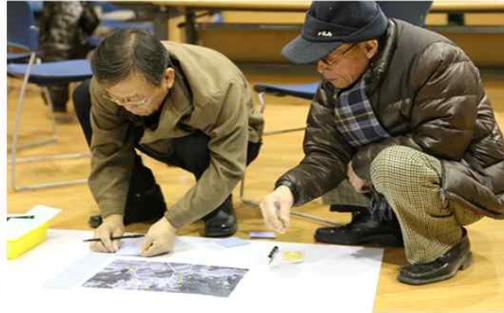
단계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구분	씨앗단계 (교육)	뿌리단계 (준비)	줄기단계 (성장)	열매단계 (연계)
단계	공동체 알기	공동체 조직	경영능력 강화	자립공동체
가치	마을구상 함께만남	마을살이 함께살이	마을살림 함께살림	마을세움 함께세움
내용	공동체 발굴	실습단계, 공동체 조직 및 사업준비	기초사업추진, 경영안정화	맞춤형 공모사업 연계지원
지원	지역창안학교 교육, 회의, 상담	300만원 뿌리자금 지원	3,000만원 이내 줄기자금 지원	맞춤형 공동체사업지원
대상	입교심사를 통해 선발된 공동체	창안학교 수료 후 뿌리단계 선정 공동체	뿌리단계 수행 후 줄기단계 선정 공동체	
자부담	자율	자율	10%이상	10%이상

12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지원 틀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ing...

지역창안대회 운영! 구상에서, 기획, 실행까지 원스톱 지원방식



13

기본에 충실한 공동체지원 틀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ing...



창안대회를 진행하며
우리공동체의 얼굴은
열정과 희망으로 변해갑니다.



공동체가 늘어나니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마을살이 지역코디네이터 양성! 인재를 찾아 역할 나누기



사람(인재) 없다 고민만 하지 마세요!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인재입니다. 지역을 돌아보면 이미 손 내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됩니다.

공동체가 늘어나니 현장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졌어요

인재양성은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어 주는 것 입니다.



코디네이터 소양교육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지역넷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활동가~
먼저 길을 걸어간 공동체리더~
함께 하면 이 모두가 지역에 인재입니다.

이제는 든든하게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의지하며 갑니다

정읍공동체협의회 창립! 공동체가 교류하며 서로 도와 갑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132곳! 이제 협의회가 있어 공동체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정읍의 공동체들이 나눔과 돌봄, 연대를 실천하는 자립적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든든하게 지역공동체들이 서로 의지하며 갑니다

정읍공동체협의회는 공동체들의 탄탄한 울타리입니다.

- 정읍공동체협의회는?
정읍의 지역창안대회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와 창업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협의회입니다.
- 정읍공동체협의회가 하는 일은?
지역공동체 간 상호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열매공동체들의 자라나는 공동체 돕기 공동체사랑 씨앗기금 조성



우리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마을연금을 운영하는 송죽마을처럼 건강한 마을들을 지켜내는 것!

콩사랑처럼 경쟁하지 않고 네트워크 지원판매를 돕는 협동정신을 넓혀가는 것!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읍시와 고창군의 아름다운 원칙을 이어가는 것!

보다 많은 지역사회, 다양한 부문의 참여로 지역의 결핍을 함께 채우는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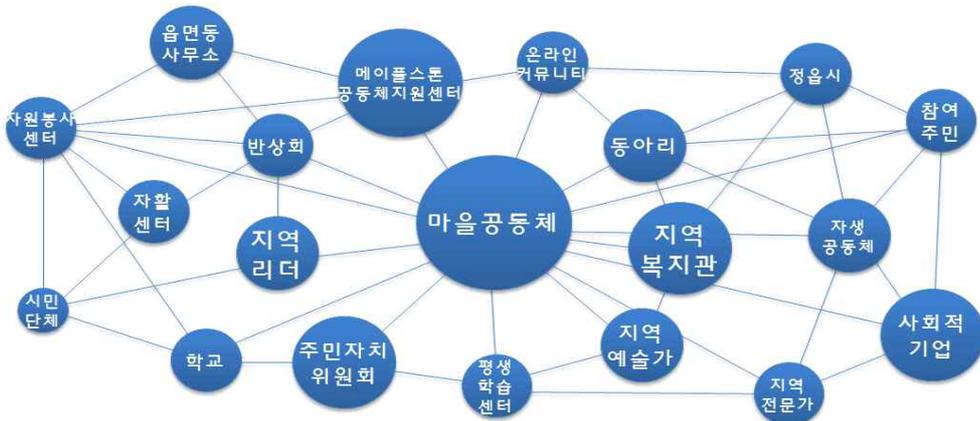
지역공동체들이 십시일반 모아 나눔과 돌봄의 연대가치를 실현합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지역을 돌보는 "공동체 행복나눔기금" 운용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
인생을 두 번 사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알게 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인공이 되어
그 어디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읍을 만들어 갑니다.

19

우리의 활동, 함께 공유한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애뜻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지역 거버넌스도 작동합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20

토론

마을단위의 융합적 실천과 지역 마을 네트워크 형성 방안:
인천사례를 바탕으로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무국장)

마을단위의 융합적 실천과 지역 마을네트워크¹⁾ 형성방안

_인천사례를 바탕으로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혜경

-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는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참여자 주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함.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주체들 간의 소통 및 연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관 소통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 형성,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주민주도 및 과정 중심의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위하여 마을과 마을간, 지역사회내 자원들을 연계하고, 시민사회와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을 연계하는 민관학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

1.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원칙

- 네트워크 사업은 교육과 학습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활동의 모든 과정은 교육과 학습을 수반함. 즉, 교육과 학습 과정 자체가 소극적으로는 네트워크 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 학습 과정을 개발할 수도 있음.
 - 지역내 네트워크 활동, 마을과 마을간 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핵심은 교육과 학습임.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교육과 학습은 주로 활동단위의 내용과 맞물리며, 이러한 내용은 네트워크 활동으로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음.
 - 즉, 모든 교육과 학습 과정은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기획이 필요함.
- 네트워크 사업의 중심에는 주민과 활동 주체들이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사업 또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하향적으로 기획되어 상향적으로 활동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일방적 기획 및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1)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2013년)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 원칙 등] 썼던 원고입니다.

-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 및 활동에도 주민과 활동 주체들이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네트워크 사업은 개방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지향한다.
 -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업과 활동의 자가 발전을 위한 기제를 마련하는 것임. 즉,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적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개방성과 다양성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임.
-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는 단발적인 활동으로 성과를 이룰 수 없음. 네트워크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나타난 성과 역시 측정가능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음. 다만, 지원 사업의 활동이나 교육과 학습 과정 등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남.
 - 다만, 확고히 구축된 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음.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향

-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강화
 - 인천의 마을은 빈민운동에서 출발해 주민운동, 주민자치, 작은도서관운동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를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마을단위가 네트워크로 확장 되면서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2010년)와 동네살이네트워크(2013년)가 만들어졌음. 이들 네트워크는 만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가치와 지속적인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 있음. 이처럼 네트워크활동은 지속적인 마을교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통해 인천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의 마을들은 네트워크의 초기에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자료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정보공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원지도 등을 제작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마을단위 조사를 계기로 하여, 마을교류 및 활동가양성 등 지속적인 활동들이 발생하고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지역사회내 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단위들을 연결시켜 줄 허브단위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적합한 단위는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과 밀접한 단위일수록 좋음.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민간단위 조직이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이 단위가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고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변화는 마을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따라 긴 시간을 두고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음.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학습을 하고, 삶 속에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단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해야 할 역할임.
- 민관학 거버넌스 및 구 단위 마을공동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원센터의 마을공동체만들기의 지속성은 어떻게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된 구 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구축이 필요함. 인천은 아직 구단위의 지원센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단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차원의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함.
 - 시단위와 구단위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관계설정이 필요한데 시지원센터는 구지원센터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컨텐츠와 시스템개발, 인천형 마을공동체만들기 정책개발, 시범사업정책 개발 등의 연구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구단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관계에 있어서도 시단위의 지원센터는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내용적인 역할분담을 해야 함.
 -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구현됨. 앞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 네트워크 구축은 민관학이 상호 신뢰를 가지고 협력해 나감에 따라 가능하게 되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역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임.
- 유형별·단계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과 마을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내 자원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방향에서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각 단계에서 발생한 네트워크는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로 파생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조사와 현장 탐방은 마을공동체 연합 아카이브로 연계될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되는 마을 자원 조사나 공동체 교육, 매뉴얼 준비를 통하여 마을간 네트워크나 지역사회내 자원 네트워크가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및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의 현재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 즉, 현재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상적 교육사업과 연계
 -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주민자치, 복지관의 지역에서의 역할 등의 내용과 더불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까지 모두 교육과 학습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교육과 학습의 형태는 마을공동체학교 등 강좌개설이 될 수도 있고 대화모임, 심포지움, 워크숍 등 네트워크교류의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
 - 이는 마을간의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임. 네트워크활동을 통해 마을의 활동가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상설 마을활동가대학이 개설이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계된 네트워크활동이 될 수 있음.

3.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추진방안

- 초기단계
 - 지역 안에서 사람, 역사, 문화, 복지, 공간, 사회경제적 조직 등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조사를 실시함.
 - 마을공동체 조사, 현장탐방, 마을공동체 순회 집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타운미팅, 민관합동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및 민관거버넌스를 강화함.

- 중기단계
 - 도서관, 품앗이, 역사문화, 돌봄마을 등 유형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함.
 - 마을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마을공동체 박람회 등을 통한 상호 유대감을 높이고, 마을공동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대학, 복지관, 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 각 기관과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

지속가능한 마을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타지역 마을공동체와의 연계 및 교류와 학습, 심포지움, 세미나 등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도모함.

□ 장기단계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대학 설립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 교육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군·구단위 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은 군·구지원센터를 위한 정기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지원함.

<표> 유형·단계별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분	마을과 마을간의 네트워크	지역내 자원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공통사항
초기	·마을공동체조사 ·현장탐방, 일상교육, 순회 집담회를 통한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마을자원조사 및 swot분석 ·타운미팅 ·민관합동교육	·군·구지원센터설립지원	·마을조사, 공동체교육, 매뉴얼준비를 통한 네트워크화
중기	·마을공동체 연합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 교류학습 ·심포지움세미나, 마을공동체 박람회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교류협력사업 ·전국마을활동가대화모임	·마을의제 발굴과 실행에 따른 민관 역할 규정 ·지역사회 대학, 복지관, 문화회관 등 각 기관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역할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마을별 자원인프라 맵제작 ·마을별아카이브구축 ·타시도 교류 및 협력	군·구지원센터 네트워크 정기 간담회	공동체교육
장기	·마을활동가 양성 상설대학설립 마을공동체네트워크 확대 제반사업	위 사항 지속	인천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확대	공동체교육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활동사항]

	2010	2011	2012	2013
마을만들기 사례나눔 및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기관의 마을만들기 사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만들기 -부평 문화의 거리추진사례 -열우물 신나는 문화학교 사례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_동네야놀자 -마을네트워크 통합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장애마을만들기 -인문학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청학동 마을만들기 -공공갈등 조정사례_십정동 송전탑 이전설치 -사회적기업이해 -마을네트워크 워크숍(마을만들기 지원제도 추진방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발전연구원, 마을공동체탐방지원(청학동 마을과 이웃, 청소년인문학 도서관느루,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다음을 생각하는사람들, 동네야놀자)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추진방안과 준비사항 점검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만들기를 위한 방향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회의진행 (2-9/월1회) -조례제정 기획단 회의
마을만들기 정책연구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례탐방 -2010인천 주민자치대학 -전국마을만들기 사례탐방(순천, 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추진단 구성 및 활동 -2011주민자치대학 운영 -마을네트워크사례집발간(마을, 마을을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추진단 구성 및 활동 -인발연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 참여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법인 창립기념 컨퍼런스 (마을만들기 10년+10년) -만나다 컨퍼런스 진행(마을,복지를 만나다. 마을, 청소년을 만나다. 마을,주민자치를 만나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대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모임
조례제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제정 순회간담회 -수원시 르네상스센터 방문 -인천시 마을만들기 TFT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조직사업	마을네트워크 모임	마을네트워크 모임	마을네트워크 모임	- 사단법인 <인천 마을넷> 창립